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4월 26일(주일) 제1292호



예배당 주일예배에 온 성도들은 ① 체온측정을 하고, ② 교인등록증(바코드) 스캔한 다음, ③ 지정된 좌석에서 QR코드를 찍고 착석해야 한다.

안전한 예배 환경으로 주일예배 재개

토요일주일예배 25일, 일요일주일예배 26일, 새벽기도회 27일
예배당 주일예배 1회, 예약한 시간에만 참석, 마스크 필수

온누리교회가 4월 25일 토요일주일예배를 시작으로 국내 모든 캠퍼스 예배당 주일예배를 재개한다. 일요일주일예배는 4월 26일부터, 새벽기도회는 4월 27일부터(토요일 새벽기도회 없음), 주중예배는 5월 4일(월) 주간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예배당 주일예배를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참석 예약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새벽기도회, 주중예배는 부여받은 바코드를 찍고 입장하면 된다. 단, 서빙고 화요일성령 집회는 예약을 해야 한다.

예배참석 예약시스템은 교인 확인(바코드 저장), 예배 예약 및 좌석 지정(QR 코드 스캔)을 위한 절차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면 된다.

첫째, 교인등록증(바코드)을 생성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 접속해서 '예배참석 예약시스템'을 클릭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교인인증(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기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에 동의, '인증번호 받기' 클릭)을 하고 바코드를 발급받는다. 발급받은 바코드를 휴대폰에 다운로드해서 저장해 둔다.

둘째, 참석하고 싶은 예배를 예약한다. 참석하려는 캠퍼스, 예배 구분(주일, 주중), 연령(성인, 대학생년부, 외국어예배), 시간대 등을 선택한 다음 예약하면 된다. 예약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주일까지 할 수 있다.

셋째, 교회에 도착해서는 안전을 위해 먼저 체온측정을 하고, 교인등록증(바코드) 스캔한 다음 예배당에 입장한다. 예배당에 입장하기 전에 미리 '좌석QR 코드 스캔하기'를 눌러 활성화시킨다.

넷째, 본당에 입장해서는 본인이 앉을 의자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찍고 나서 착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 좌석을 재배정 할 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주일예배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1회만 참석할 수 있다. 등록교인, 등록 과정(새가족교육)

중인 새가족, 외국어예배 교인은 예배예약을 할 수 있고, 미등록자나 교회에 처음 온 성도는 예약이 불가하다. 단 등록교인 가족, 미등록된 자라도 목회자나 성도의 확인이 가능하면 예배 예약 및 참석이 가능하다. 바코드 발급이나 인터넷 예배 예약이 어려운 성도는 공동체 목회자나 목회행정실, 임시 안내데스크(예배당일 설치)에 문의하면 된다. 교회 출입은 본인이 예약한 예배시간에만 가능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신설된 토요일주일예배는 서빙고와 양재 1부 오전 9시(65세 이상), 2부 오후 4시, 3부 오후 6시(대청)/부천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대청)/수원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대전 오전 11시 30분/남양주 오전 11시 30분/평택 오후 4시/인천 오후 4시, 오후 7시(장소임대관계로 시작 시기 미정)/강동 오전 11시 30분/양지 오전 9시(5월 2일부터 시작)에 드린다. 일요일주일예배는 기존 주일예배(1~7부, S브릿지, SNS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드린다.

문의: 서빙고 02-3215-3220, 3263

양재 02-570-7447, 743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

공감소비운동 4월 26일까지 사연신청서 접수

온누리교회가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감소비운동' 캠페인을 시작한다. 공감소비운동은 교회가 부활절(4월 12일) 헌금과 4월 비전헌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서 각 공동체 다락방에 전달하면, 다락방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5월 31일(성령강림주일) 전까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캠페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아주 뜻깊은 캠페인이다. 체제된 지역경제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사랑

을 동시에 전할 수 있다. 공감소비운동에 사용될 헌금은 약 3억 원이다.

사회선교본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주일)까지 공감소비운동 다락방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각 다락방이나 사역팀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사연을 신청하면 사회선교부에서 검토한 다음 상품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선교본부 신동식 목사는 "성도님들이 봉헌해준 귀한 헌금이 예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소비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예배 지원 프로젝트'

CGNTV, 교회 250곳 지원

CGNTV가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CGNTV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교회 250개를 선정해서 스마트폰 라이브 방송을 위한 패키지, 온라인 화상 컨설팅 등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비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CGNTV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방문 컨설팅 및 장비 지원, 온라인 화상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된 길과진리교회 장용환 목사는 "이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안전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교회 방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어 예배당에서 모일 수는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시기입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셔야 합니다.

그 밖의 성도님들도 당분간 온라인 예배나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예배 참석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수칙을 따라 참석해 주십시오.

1.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교인 확인 및 예배 예약을 해야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공동체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 예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교인들은 매주 1회의 주일 예배 예약 및 참석이 가능합니다.
3. 예배 예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등록교인, 등록 과정 중에 있는 새가족, 외국어예배 교인입니다.
4. 모든 성도들은 각기 원하시는 요일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토요일 1부예배(오전 9시)를 준비하였으나, 형편에 따라 다른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5. 차세대예배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임시 목회행정실에서 확인 후 예배에 참여합니다.
-등록교인의 가족들
-미등록교인이나 출석하시는 분 중 목회자/성도의 확인이 가능하신 분
7. 사회적으로 더 안전한 상황이 되면 새가족에게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방역을 위해 새가족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

4월 30일까지 오전 9시~오후 9시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4월 30일(목)까지 계속 이어진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지속된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는 코로나 19 퇴치 및 치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회다.

소속 공동체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교회 본당에 나와 1시간씩 중보기도 하면 된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인원도 캠퍼스별로 제한된다. 그 대신 온라인으로도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한 성도가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기도하고 있다.

이름을 적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문상찬 장로(한강공동체)는 “현 시국은 크리스천들의 기도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201, 331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한동대 ‘필사즉생’ 캠페인

현재까지 9개국, 140개 교회, 381명 참가
3만 구절 필사, 누적후원금 4백6십만 원

한동대학교와 한국 교회가 함께하는 ‘필사즉생(筆寫則生)’ 캠페인이 4월 30일(목)까지 진행된다. 필사즉생 캠페인은 성경도 필사하고, 이웃 사랑도 실천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 캠페인이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써서(날짜, 교회명, 이름, 쓴 구절 수 기재)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말씀 한 구절 당 200원(경북포항지역 취약계층 운영기관에 100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동대학교 재학생에게 100원)이 기부된다. 4월 19일까지 9개국, 140개 교회, 381명이 성경 30,627구절을 필사했고, 누적후원금 4백6십여 만원으로 집계됐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필사즉생 캠페인에 참가하려면 4월 30일(목)까지 성경을 필사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네이버 폼(bit.ly/upwords)으로 보내면 된다. 사진이 3장 이상이면 이메일(sarang@handongedu)로 보내도 된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개인 및 교회, 가족 등 누구나 필사즉생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한동만나’ 기부자도 모집하고 있다. 한동만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한동대 재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한 사람이 1만원을 기부하면 약 네 끼를 나눌 수 있다. 한동만나 후원계좌(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대학교)로 후원금을 입금하면서 ‘본인 이름, 한동만나’를 입력하면 된다.

문의: 054-260-1063

당분간 온라인 예배 및 순모임 병행

유튜브, CGNTV 활용

온누리교회는 당분간 예배당 주일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 및 모임을 병행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토요일 1~3부 예배, 일요일 1~7부 예배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 대학청년부, 외국어 예배(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스페인어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하단 예배안내 참조).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영성관리를 위한 노력도 온라인으로 지속해야 한다.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에 매일 참여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드라이브인 워십을 마치고 출차하는 성도들이 차 안에서 인사하고 있다.

드라이브인 워십 ... 양재동 현주차장

주일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1시 50분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드라이브인 워십(Drive-in Worship)’도 당분간 이어진다. 서초구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주일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된다. 드라이브인 워십 실행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드라이브인 워십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예배마다 차량 250대를 선착순 마감한다.

드라이브인 워십에 참가하는 성도들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급속 자동차 안에 머물러야 하고, 자동차 창문을 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성도들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 진행을 위해 빠르게 출차해야 한다. 라디오 주파수는 88.5MHz이다. 문의: 02-3215-3232, 02-570-7447

/ 정현주 기자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강의

‘고전문학과 영성’, ‘성경적 부모교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 강의를 개강한다.

기독교 영성 고전들의 주제와 내용을 영성신학적 관점에서 해설하고 강독하는 ‘고전문학과 영성’ 온라인 세미나가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6주 동안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박세훈 목사(새문안교회 부목사), 유재경 목사(대덕교회 담임), 이주형 목사(송실대 교목)가 로렌스 수사 <하나님의 임재연습>, 성 프란체스코의 글, 아빌라의 테레사 <영혼의 성>을 해설하고 강독한다. 기독교 고전문학과 영성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 자료실에 고전문학과 영성 동영상 강의가 게시되면 2주 내에 들으면 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5월 14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문의: 02-2078-3279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으로부터 자녀의 미래와 영혼을 지켜내려는 부모, 교사, 사역자들을 위한 ‘성경적 부모교실’ 세미나가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보기, 자녀 훈계 18계명, 생명의 말하기, 자녀의 마음 듣기 등을 주제로 이기복 교수(온누리교회 협력목사, <성경적 부모교실> 저자)가 강의한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부모 및 예비 부모, 주일학교 교역자, 교사 외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5월 14일까지 등록하면 2만 원 할인된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 자료실에 동영상 강의가 게시되면 2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75

온라인 예배안내

1.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예배(1~7부)와 새벽예배(1부 오전 5:20, 2부 6:30)에 참여합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CGNTV: www.cgntv.net

2. 개인영성 관리를 위해 생명의 삶(QT)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예배’,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에 매일 참여합니다.

3.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4.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9:00, 11:30, 오후 2:00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오후 2:00

-파워웨이브 오전 9:00, 11:30

-차세대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

5. 대학청년 온라인 예배

- 주일예배: 토요일 오후 5:00, 주일 오전 11:30

주일 오후 2:00, 4:00, 5:30

- 홀리스타: 오전 6:30(월~금)

- 대학청년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

6. 외국어 온라인 주일예배

-영어예배 오전 11:00, 오후 4:00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스페인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오후 2:00

7. 장애인 온라인 주일예배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장애인사역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요즘은 서로 거리를 두는 일이 미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세계적인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이를 꼭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이 단어를 뒤집어야 합니다. 그것을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였다면 교회는 이 재난으로 인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의 활동이 교회였다면 교회는 망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야만 예배가 가능했다면 예배는 이 땅에서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눈에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더 강조합니다. 교회의 일차적인 활동은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때 사용된 모든 동사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돌을 하나로 만드셔서 화평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돌을 한 새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교회의 일차적인 활동은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어떤 활동 이전에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기능으로 보아서 안 됩니다.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는 공동체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13절).

이것이 인간 존재의 시작입니다. 스펔전 목사님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네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거대한 무지의 짙은 구름입니다. 짙은 구름이 있을 때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무지의 구름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죄악이라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측량할 수 있지만, 우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

에베소서 2:13~18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멀리 있기에 더 가까워짐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가 쌓은 죄악의 산맥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셋째, 거룩한 진노라는 깊은 협곡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건널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협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두려움의 바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의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멀어지기로 택한 인간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막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택할 능력을 주셨기에 인간의 결정대로 내려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불행한 일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내어 주셨을 때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사랑과 순종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인지를 깨닫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 합니다.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인간은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인간은 불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거리두기 뛰어넘는 유일한 공동체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17~18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과 평화를 공동체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탄과 거리를 두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거리를 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둔 인간에게는 참된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

워진 사람들은 사람들끼리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이라는 선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분은 이른바 교회에 다니는 분입니다. 그러나 멀리서도 가까워지는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분들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교회가 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소외와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나 적대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외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외는 하나님과 거리를 둬으로써 인간 안에 발생한 소외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는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거리두기 아니었습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율법을 요구하고, 그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계속했기에 사도행전의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류를 두 부류로만 구분했습니다. 유대인과 개들(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도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리두기의 역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를 두며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 ‘한 새사람’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쓴 단어는 ‘한 새사람’입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소외가 없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소외가 없기에 화평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 피 뿌림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이들은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새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정말 아름다운 미덕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남녀를 구별하기 위해 ‘ㄱ’자로 예배당을 건축해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건축물보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덕삼(趙德三)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은 김제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조덕삼 장로

님의 마부인 이자익(李自益)이라는 청년이 17살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당시는 신분 사회였는데 주인인 조덕삼과 종인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교회의 장로를 뽑는 날이 되었는데 당연히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곳은 전라북도 김제인데 이자익은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신분과 지역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자 예배당은 조용하고 긴장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오늘날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삼은 몇 년 후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영적 은사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평양신학교에 보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지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자익 장로가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 잡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후에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초청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세 번이나 연임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끄셨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만났기에 모든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한 새사람, 모든 담과 벽을 허물고 한 새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었지만 가까워졌습니다. 사회의 신분과 가정의 경제적 격차를 보면 멀리 있어야 마땅한데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었고, 이 두 가정은 지금까지도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 교회를 흔드시는 이유는 오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멀리서 가까워지고, 안전 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재난의 기간을 통과하고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멀리 있기에 더 가까워짐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런 교회가 된다면 재난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동치는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 하나님과 성도들과 더 가까워지는 교회 지체임을 기억하고, 이 재난의 때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SNS공동체 '릴레이 성경읽기'

요즘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피부로 느낄 만큼의 큰 어려움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루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소망한다.

작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시간이 있었다. 바로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며 꼼꼼히 성경을 일독하면서 쌓은 말씀이 큰 자산이 되었다. 그 힘이 지금까지 나를 잡아주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준 것 같다. 미리 준비시키고 단련시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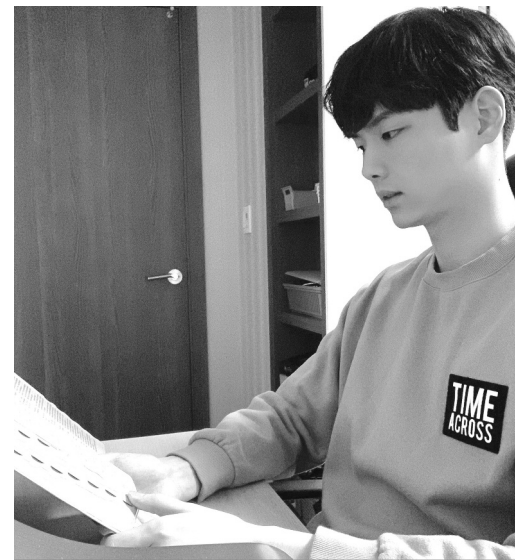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났다. 그중에서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보고 그리움을 달래고 있던 순원들이 떠올랐다. 내가 받은 은혜와 위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라인 순예배를 드리던 중에 조심스럽게 성경읽기를 권했다. 감사하게도 다들 긍정적으로 반응해주셨고, 순장님께서는 시간을 정해 함께 성경을 읽자며 먼저 제안 해주셨다. 여담이지만, 훌륭한 순장님께서는 이미 전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계셨다. 그래서 내 제안에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만들어주신 듯하다.

그날 이후 우리 순은 주 3회, 오후 10시에 화상채팅으로 다 같이 성경을 읽고 있다. 처음에는 매일 온라인으로 만나 성경을 읽었는데 개인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주 3회로 합의를 보았다. 10시가 되면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 핸드폰과 노트북, 태블릿을 활용해서 채팅창을 켜고, 4절씩 돌아가며 총 3장을 같이 읽고, 성경을 다 읽은 후에는 짧게 그날 말씀에 대한 묵상과 삶을 나눈다. 시작하기 전에는 '하루 성경 3장 더 읽는다고 큰 변화가 생길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나 큰 은혜였다.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귀하고 박찬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서로 묵상한 내용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 더 귀했다. 순원들이 묵상한 내용을 들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된다. 또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정리가 되는 듯 했다. 말씀을 삶과 연결 지으려고 노력하며 이야기 하다 보니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더욱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말씀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을 요즈음 더 많이 깨닫는다. 혼자 믿음생활을 유지하기는 정말 힘들다.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믿음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



박예찬 형제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순원들과 함께 '릴레이 성경읽기'를 하고 있다.

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 박예찬 형제(SNS공동체)

여호수아공동체 'Shout 온라인 기도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신앙생활에 고난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그 중 한 명이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아쉬운 마음이 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공동체 프리즘그룹장님과 문화사역팀장님께 연락을 받았다. 당장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진행하던 'Shout 기도회'의 온라인 생중계를 결정했는데 중계를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다.

Shout 온라인 기도회는 여호수아공동체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다.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2월 기도회가 중단되면서 이렇게 기도회가 사라지나 싶어 안타까워하던 차였다. 그래서 그룹장님과 사역팀장님의 제안이 한편으로는 기뻐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여호수아공동체와 프리즘그룹에서 여러 영상을 만들어 상영해왔지만 생중계는 부담이 되었다. 내가 생중계를 해본 경험은 2월경 코로나19로 콘서트를 취소하게 된 크리스천 힙합 아티스트 GFU의 유튜브 공연 생중계가 전부였기에 '과연 내가 이 큰 기도회를 생중계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과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지체들과 달리 직접 예배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한 번이지만 경험해봤던 유튜브 생중계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여호수아공동체 'Shout 온라인 기도회' 생중계 현장.

준비 시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사역에 대한 요청은 능력이 된다면 무조건 순종하자'는 내 스스로의 약속 덕분에 감사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응하기로 했다.

그렇게 섬기게 된 기도회는 나 말고도 여러 지체들이 함께 준비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생중계를 통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모인 지체들이었다. 영상프로덕션

NIVI의 김하은 형제와 프리즘의 문화사역팀장 엄정환 형제와 함께 새벽 1시까지 생중계 장비를 테스트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비롯한 중계 장비들을 준비하고 리허설을 거쳤다. 늦은 시간까지 기쁨으로 섬김을 감당하는 지체들의 섬김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기도회 당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의

도치 않은 작은 사고들, 실수, 장비의 파손, 기도회 구성 변경 등 넘어야 할 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다행히 기도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장비가 복구되고, 생중계를 위한 사전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비록 리허설을 해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족했다. 멈춰질 뻔했던 기도회와 예배가 살아나고, 여호수아공동체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생중계 중 일어난 실수나 사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와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과 감사가 더 중요했다.

생중계 도중 너무나 당연하게 실수와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애쓰는 모두를 보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소와 시간은 바뀌더라도 어떤 것도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올랐다.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감격, 기쁨이 가득한 기도회를 생중계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됐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더 단련되고, 더 말씀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한다.

/ 김현욱 형제(여호수아공동체)

기쁨 가득한 예배를 생중계하며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차세대 교사의 소망

아침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알리는 휴대폰 경고음이 울리자 곧바로 아이들이 생각났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저 지금 게임하느라 바빠요.”

아이들의 반가워하는 목소리를 기대했는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연신 들려왔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반응은 비슷했다.

“누구세요?”

“기훈쌤이야.”

“아 왜 번호가 저장이 안 되어있지?”

“너는 지난주에도 같은 소리하더니...”

2월 16일 이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내 생각과 달리 반응이 차갑기만 했다. 내가 이런 반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긴 했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서운한 마음이 금세 가라앉는다.

이해영 목사님의 심방으로 시작된 나의 차세대 교사 생활은 어느덧 7년이 다 되어간다. 차세대 교사를 하며 여러 명의 교역자와 많은 교사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참 많이 성장했다. 나는 늘 아이들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번 통화 역시 아속한 아이들



김기훈 교사는 하루 빨리 아이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였다.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아이들을 보며 ‘한 번 더 이야기할까’, ‘또 이 이야기하면 서운하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올라왔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고마워하지 못할망정 불평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 속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 매주 소그룹모임 마치는 기도를 하면서 울먹거리는 나의 모습처럼.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 나의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시기에 어떻게 하셨을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렸던 여름수련회가 시작되기 전 우리 반 아이들과 모두 평일에 일대일로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한

나의 계획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 지갑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 나눠준 말씀카드를 잘 가지고 다니고 있을까? 이 외에도 오랜만에 만난 전도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싶고, 새로 오신 교사들과도 친해지고 싶고, 이제 막 파워웨이브로 올라온 아이들과도 만나고 싶고, 본격적인 입시 전쟁을 앞둔 고3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그들과 말씀 듣고 찬양 부르며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기만 하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 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교사들이 함께 모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준비하던 모든 시간이 그림고 아쉽다.

처음 교사를 시작할 때는 우리 반 아이들만 보였는데, 연차가 지나면서 점점 차세대 아이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다.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모든 것에 계획이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디모데후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딤후 2:15).

/ 김기훈 교사(파워웨이브 2부)

어느 차세대 학부모의 간증

지난겨울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JesusRock 영어말씀 암송 캠프’에 참가했다.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꾸준히 말씀을 읽으며 금세 말씀을 암송했고, 각 가정에 간증이 넘쳐났다. 아이들과 함께 영어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신명기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했다. 새 학기에 다시 캠프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내심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던 예배는 급기야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교회의 모든 차세대 프로그램이 취소되었다.

모든 보육기관이 문을 닫아 아이들의 외출이 통제되었고, 실내에 갇혀버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오히려 부모의 몫이 되었다. 출근이 미뤄지고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 처음 며칠은 ‘그동안 바빠서 아이들에게 못해준 것을 해주자’는 생각에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하다 보니 ‘내일은 또 애들이랑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라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에 담당 전도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온라인 성경암송 캠프가 진행되니 신청하라’는 메시지였다. 처음 메시지를 받고 온라인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주저하지 않고 답신을 보냈다.

아이와 함께 말씀 배우고, 암송하고, 즐겨 읽으며

“전도사님 룬이와 온이는 참가합니다.”

3주 동안 외울 말씀이 안내되었고, 매주 외울 구절과 관련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들끼리만 지내다 유튜브에 등장한 전도사님을 본 아이들이 환호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줄 아는지 “전도사님! 전도사님!”을 연신 불러대는 아이들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만남을 얼마나 원했는지 알 수 있었다. 매주 보내주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만들기를 따라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만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말씀 세 번 읽기 숙제를 하고, 녹음해서 그날 저녁 담당 선생님께 보냈다.

늘 그렇듯 숙제가 주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 부담 때문에 아이들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말씀이 담겼다. 아이들이 무엇보다 기다리는 시간은 전도사님이 보내주시는 택배를 개봉하는 시간이었다. 박스를 열면 그 주 말씀을 주제로 한 만들기 활동 재료와 갖가지 간식이 든 선물 꾸러미가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 손수 오린 종이들과 일일이 포장한 간식들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받아 온 사랑이 고스란히 보였다. 차세대를 품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음에 감사했다.

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

민했던 것 같다.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첫째 아이를 두고 어디를 보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를 고민하며 팬스레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그 어느 곳에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지가 선행해진 것 같다. 아침 큐티시간에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신 4:6)는 말씀을 묵상하며 아이들을 지혜롭게 기르는 방법은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며, 즐겨 읽게 하는 것임을 새롭게 깨달았다.

3주 동안 입술로 선포한 요한복음이 아이들의 마음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길 소망한다. 룬이와 온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아는 아이로 자라나길 기도한다. 같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



룬이와 온이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영어말씀 암송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는 좋은 동역자를 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한다.

/ 양지민 성도(Point5공동체 j-rock)

코로나19, 온 누리에서 이렇게 돕고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NGO 더멋진세상’

9개국에서 코로나19 맞춤형 구호활동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9개국에서 코로나19 확산 형태와 지역 상황에 따라 맞춤형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의 대륙별 맞춤형 구호활동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급격하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중남미 온두라스, 멕시코에서는 주민들이 일 자리를 잃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있는 상황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두라스 사바나 마을에 마스크 2400장과 소독제 30개를, 멕시코 티후아나 푸엔테스 마을 250가정에

는 1개월 분량의 식량과 위생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더 많은 국가와 지역에도 도움이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긴급구호 수요조사와 KOICA 인도적 지원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스리랑카, 몽골, 네팔 등지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 활동을 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인도와 국경을 접한 네팔은 지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HIV 감염 아동들에게 의료용품이 시급한 상황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HIV 감염 아동들에게 위생용품과 영양제를 지원하고,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했

다. 건강상태가 심각한 아동들은 병원으로 후송했다.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품을 확보해줬다.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긴 스리랑카 야길 마을과 라투갈러 마을 226가구에는 식량을 제공했다. 몽골에서는 바잉동 마을과 도립 병원에 면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했다.

아프리카의 세네갈, 말라위, 우간다, 르완다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 활동을 했다.

세네갈 본나바 마을은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 각 가정에 비누를 제공하였고,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말라위 포스트 마쉴라니 1, 2 마을위원회와 주민 900여 명에게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했고, 마스크, 손소독제, 비누 등을 전달했다.

휴교조치가 내려진 우간다 부드리 난민촌

과 팔로리나 정착촌에는 각 가정마다 아동 급식을 배달했고, 방역활동도 했다.

정부의 이동통제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르완다에서는 응호망과 마을과 무니기냐 헬스센터에 주민 5400여 명이 1개월 동안 먹을 분량의 식량(4인 가족 기준), 마스크 2000장, 비누 10,000개, 방호복 900벌, 손소독제를 지원했다.

■ NGO 더멋진세상 스태프 간증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더 멀리 뻗어가기를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COVID-19)가 중국과 한국을 뛰어넘어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pandemic)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전쟁보다 가혹하게 지구촌 전체를 마비시켜버렸고, 경제기반을 흔들면서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도 순식간에 초토화 시켜버린 코로나19는 이제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부족한 제3세계 국가에서 그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가면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각 국가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봉쇄령으로 인해 일 자리를 잃고 식량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갑작스레 닥친 생존의 위기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진단키트와 적절한 치료시설의 부족은 물론, 자신들을 보호할 방호복조차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처절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사상 초유의 전 세계적 비상사태를 맞아 위기에 처한 제3세계 주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위생용품을 제공하며 그들이 안전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지원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네팔에 지원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남수단 난민들이 모여 사는 부드리 난민촌에서는 식량이 부족한 아동들의 가정에 급식을 제공했고, 모든 가정에 비누, 손 씻기 통, 소독제를 배포했다. 또 소규모 워터스탠드를 40곳 설치해서 물이 귀한 난민들이 수시로 손을 씻도록 했다.

네팔 극서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한창이던 지난 2월 초순부터 미리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누, 식량 등의 물품을 구입해서 HIV 감염아동에게 배포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봉쇄령이 내려져 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매일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해진 질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건강상태와약품보유 상황, 식량 상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다.

실론티로 잘 알려진 스리랑카 차발 지역에서는 최근 정부의 통행금지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다. 차발 일과 도시의 헬퍼 등으로 노동하던 주민들이 한순간에 일 자리를 잃고,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곡식농사를 짓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소득이 끊기면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자마자 NGO 더멋진세상은 신속하게 현지에서 식량과 물품을 준비해서 230여 가정에 쌀과 콩, 설탕 등의 식료품과 비누를 제공하였다.

몽골 동부 바잉동 지역 도립병원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하고, 감염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뒤늦게 환자가 증가한 중남미 온두라스 사바나 마을 주민 2400여 명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했다.

우리는 자들과 함께 올려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NGO 더멋진세상의 역할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가치가 더욱 드러난다. 코로나19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초유의 비상 상황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누군가 내밀어 준 작은 사랑의 손길 때문이라.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더 멀리 뻗어가기를 바란다.

/ 고대선 실장(NGO 더멋진세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이 바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사회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속한 이들이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회식 비용과 야유회 비용을 아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김영환 장로(OCC공동체)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다. 이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직원들은 회사에서 나눠준 상품권으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환 장로와 회사 직원들의 이웃사랑 실천을 보고 있으면 험벗고 아픈 이웃들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떠오른다. 김영환 장로와 회사 직원들의 이웃사랑 실천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의 답이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병에 걸려죽든, 굶어죽든 둘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그 사정이 오죽할까. 온누리교회에서는 지역사회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하여 ‘공감소비운동’을 시작했다. 4월 비전현금과 부활절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각 공동체 다락방에 전달한다. 각 다락방에서는 전달받은 상품권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를 찾아가 물품을 구매한다. 구매한 물품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지역사회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이

웃사랑 방법이다.

김영환 장로도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환 장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이미 이웃들을 살피고 섬기는 기업으로 소문이 나있다. 매주 월요일 직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날짜를 정해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봉사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못내 아쉬웠던 김영환 장로는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웃사랑 방법을 찾던 중에 온누리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공감소비운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회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공감소비운동을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던 김영환 장로는 평소 회식과 야유회 비용으로 쓰이던 돈이 생각났다. 코로나19로 직원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모이는 돈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돈을 회사 운영에 보태거나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직원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비용을 쓰기로 결정했다. 회식비용과 야유회 비용을 모두 모아 보니 직원 1인당 5만 원정도 돌아갈 수 있었다. 김영환 장로는 그 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서 말씀카드와 함께 직원들에게 나눠

줬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주었던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고민하며 사용해 달라”고 권면했다.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던 직원들이었기에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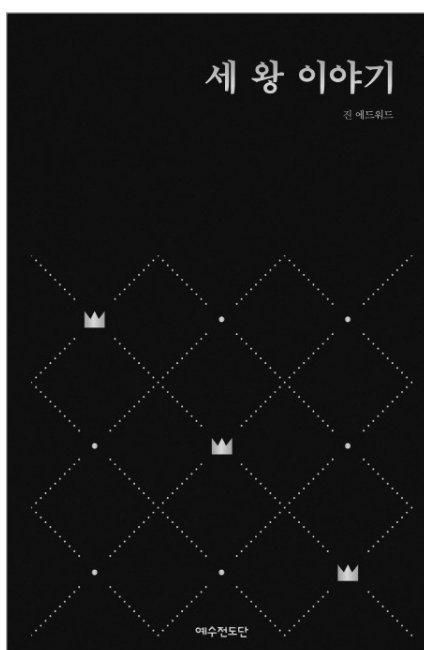
김영환 장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돕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김영환 장로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작지만 귀하고 뜻 깊은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시요”



책 읽어주는 목사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중심’



세 왕 이야기

진 에드워드 저 | 예수전도단 | 9,000원

나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관계를 잠시 멈춘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중 하나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가치관보다는 세상이 이야기 하

는 리더, 동역자, 가족끼리의 관계에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말하는 관계의 중심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 남이 나를 악하게 대하면 나 또한 악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뒷사람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뒷사람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기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 그 답이 있다. 오늘 이 책을 성도님들께 추천 드리는 이유는 내 평생 가장 많이 읽었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가장 많이 선물한 책이기 때문이다.

〈세 왕 이야기〉는 1994년 초판 이래 79만 명이 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은 책이다. 이 책에는 세 명의 왕이 나오는데 사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탁월했고, 용맹했으며,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우며 겸손했던 사람이다. 그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으뜸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기적이었으며, 시기심이 있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을 만나자 그 안에 숨어 있던 동기들이 나타나면서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

려고까지 했다.

다른 한 명의 인물인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찔렀다. 사울의 가장 측근이 되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자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요, 딸의 남편인 사위였다. 그런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을 주는 자가 바로 그의 리더인 사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자를 붙여주셨으며 그로 인해 다윗이 어려움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며 섬기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다.

“왜 하나님은 선한 자 옆에 악한 리더를 두셔서 핍박 가운데 두시는지요?”

이 책에서 몇 가지 답을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다윗 안에 사울과 같은 내적 동기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선하며 용맹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하지만 인간은 죄성이 있으며, 그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사울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의 권위 아래서 그가 다윗을 죽이려는 어려움 가운데 두면서까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셨다.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윗이 리더가 되었을 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방법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며 반역을 일으키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그리스천 리더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그중 한 가지가 ‘가만히 있기’다. 여기서 가만히 있기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로 있는 것을 뜻하는데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모든 리더는 인간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그 부족한 면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 그 순간 동역자들은 그 리더를 향해 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리더는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원리 외에도 몇 가지 제안을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 말한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통해 위로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한다.



김성웅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시리즈 재난과 교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구약성서적 성찰’

생로병사,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전 12:1~7). 그러나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은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자연스런 인생주기를 해치는 많은 병을 극복한 것 같았지만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등 최근 자주 출현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모습은 새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에피데믹(epidemic) 수준을 넘어 팬데믹(pandemic)이 되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 왔던’ 교회의 공식예배까지 멈춰졌으니 이것만 보아도 그 파괴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히 10:26)같이 된 것 같아 신앙인에게는 영적 고통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약성서에 나타난 전염병의 사회적 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나아가 특히 예배 및 집회 중지라는 교회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구약성서에 비추어 성찰해 보려 합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전염병

구약성서에는 다수의 병이 나옵니다. 열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미치는 것, 눈매는 것, 정신병(신 28:21~28), 간질 또는 정신착란, 악령 들림(삼상 16), 뇌졸중 내지 심근경색(삼상 25:38), 열사병/일사병(왕하 4:18~19), 창자의 중병(대하 21:15~19), 발병(대하 16:12) 등입니다.

특히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로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파멸’의 범주에 해당하는 각종 병과 자연 재난이 축복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열거되고 있는데(신 28:20~28) 이 목록에서 전염병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8:21). 그만큼 고대의 전염병은 단기간에 공동체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은 전쟁(칼)과 기근과 함께 삼대재앙으로 여겨졌습니다(렘 27:8, 13, 겔 5:12~17, 6:11~12, 7:15 등).

그 성격과 피해와 관련하여 구약성서에 처음 언급되는 전염병은 출애굽이야기의 열 가지 재앙 중 다섯 번째의 것으로 이때는 애굽의 모든 가축만이 희생되었습니다(출 9:1~7). 가축과 집 나르는 짐승까지 피해의 규모는 심각하였지만 그럼에도 애굽의 가축에 국한되었던 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문자적으로 ‘여호와와 손’)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의 '아슈도드에서 창궐한 전염병' (파리루브르박물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 시달에 진을 쳤을 때 역병이 돌아 2만4천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합니다(민 25:1~9).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고, 그들의 영향으로 바알브를 제사에까지 가담한 결과였습니다. 이 역병이 모압 여자와의 성적 접촉을 통해 면역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감염되어 확산된 것이라면 이는 음행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진노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3~4절).

사무엘상 5~6장의 언약궤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맹렬히 퍼졌던 병에 대해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두자 ‘독한 종기’(삼상 5:6, 9, 12)로 번역된 병이 전 지역을 강타하여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5:11).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5:12) 정도였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6:4~5)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내린 이러한 조치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모방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결과를 끌어낸다는 유감주술(類感呪術)의 원리가 내재된 것을 바라볼 때 쥐 종류의 동물이 옮겨 발생한 전염병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앙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하나님의 손)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국이 안팎으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때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합니다(대상 21:7).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성취를 백성의 수효로 과시하려 함으로써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왕의 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은 칠 년 기근, 석 달간의 왕의 도망, 그리고 사흘간의 전염병이라는 세 가지 징벌을 제안하였고, 다윗 왕은 이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삼하 24:7, 대상 21:7).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왕국 전역에 퍼진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삼하 24:15, 대상 21:14). 이 전염병의 징벌에서는 지도자의 죄를 수많은 백성이 고스란히 떠맡고 대신 죽은 대리적 죽음의 차원이 나타납니다.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제국의 대왕 산헤립은 유다를 침략하여 46개의 요새 성읍과 주변의 수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산헤립은 예루살렘에 군대장관을 보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며 백성의 사기를 꺾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감언이설로 항복을 유도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고립된 히스기야 왕은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호와와 사자’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진영의 군사를 치셨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산헤립은 어쩔 수 없이 철군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정복을 모면하게 됩니다(왕하 19:35, 사 37:36). 밤사이 십만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군막사의 취약한 위생으로 인해 생긴 전염병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어간에 히스기야 왕이 심한 중병을 앓게

되는데(왕하 20:1), 이 맥락에서 읽어본다면 이 전염병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술한 바, 구약성서가 증거하는 전염병의 몇 가지 용례에 나타난 그 사회적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병은 단시간에 수많은 죽음을 초래하는 병으로 인간은 물론 산 짐승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염병은 병의 차원을 넘어 전쟁과 기근에 상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둘째, 전염병은 위생이나 잘못된 행위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구약성서는 이를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으로 규정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으로써의 전염병은 죄를 지은 자(들)의 징벌을 다수의 타인이 대신 치른다는 대리적 고통의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여호와와 종의 노래’(사 53:4~5)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오늘날 코로나19에 감염된 자가 그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는 생각은 그릇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이에 비추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회의 공식예배 중지 대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제사제의 비판 및 금지

고대 이스라엘에는 예배가 금지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었는데 흔히 ‘나병’이라 불리는 피부병은 특히나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환자는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져 일정한 정결의식을 거치지 전까지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성소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레 13:45). 사람뿐만 아니라 옷이나 집도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레 13:47~59). 이러한 규정은 이 병의 감염성을 인식한 데서 나왔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이처럼 감염성의 병자를 성소로부터 그리고 거룩한 성소를 찾는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부정한 자의 출입으로 성소가 부정해져버린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는 병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서 공식예배를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고대사회에 비해 이동과 접촉이 더 잦은 사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일반인의 공식예배 중지는 과연 성서적일까요? 교회예배 중지라는 대응책을 대하며 우리가 성서에서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일까요?

구약성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 호 6:6 등)는 소위 제사를 비판하는 말

숨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직접 성소예배를 금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기원전 760년경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벤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암 5:5)고 명령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삼대성소였던 벤엘, 길갈, 브엘세바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5:4)고 하십니다. 성소는 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는 것은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원과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소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그들은 성소에 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봅시다.

“너희는 벤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암 4:4-5).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범죄로, 한결음 나아가 죄를 더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아침마다 또 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정해진 십일조와 감사헌금 외에도 자원하여 수많은 예물을 바친 것이 범죄라니 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율법에 어긋나게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아모스보다 약 한 세대 후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사야를 통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사 1:11~12)

그러니까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제사방식이나 우상숭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일상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예배는 제사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갖 종류의 제사 드리기를 기뻐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모스에 따르면 수많은 예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암 5:14).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마 28). 그런데 제사예배에서 선포되는 이 구원과 은혜의 선포가 왜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
지난날 예배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렸는지,
신자로서의 책임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행위로
축소시킨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에서 선포하는 구원말씀은 제사 드리는 자로 하여금 성소에서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과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 밖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고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제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사만이 그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소는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 제사 드리는 자들의 모임장소로 또 사교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경박하고 천박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말씀으로만 충만한 성소의 제사예배를 통해 조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제사와 모임과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암 5:21~23).

반면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5:4, 6).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벤엘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5:5). 성소는 곧 무너질 것입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소가 아니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5:14), 더 적극적으로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5:15)고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하나님 찾기의 구체화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5:15). 즉, 하나님은 성소가 아니라 성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5:10, 12).

고대에 성문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통행하는 가장 일상의 자리였으며, 바로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문은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난한 자의 권리가 보장되며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일상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 즉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의 상황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제사 드리기만 한다면 그 제사예배는 제아무리 아름다운 찬양과 살진 짐승의 제물과 분향이 있다 해도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당시 예배의 표준을 어기신 점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술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기뻐했던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성소는 무너지고, 나라는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

사 받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교회의 공식예배 및 집회의 중지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가 공식 예배 및 모든 집회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해의 시대가 아닌데도 예배가 공식적으로 중지되다니 신앙인으로서 황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구약성서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교회 공식예배 중지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직접적인 예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 나타난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신학적 설명, 그리고 제사예배에 관한 비판적 예언 말씀에 비추어볼 때 현금(現今)의 대응책은 모이기를 폐하는 반기독교적 조치가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집회가 실제로 코로나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 유지를 위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지는 사회적 요청에 공감하고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외치는 바, 성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문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형편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회 공식예배의 중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간에 모두가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잠시 중지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공식예배의 중지는 이웃의 형편에 동참하는 더 적극적인 예배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공식예배가 중지된 것을 두고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 멀리 나간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를 계기로 우리는 지난날의 예배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신자로서의 책임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 자체로 축소시켜 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신앙의 책임이 주로 교회라는 장소에서의 예배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사회 참여의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신 14:28~29, 26: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의 신자에게는 교회예배가 신앙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문에서, 즉 이웃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가능하다는 아모스의 선포에 귀 기울여 코로나19 사태가 예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참뜻을 성찰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배희숙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TGC KOREA '코로나19'에 관한 아티클

KOREA 복음연합

코로나19가 주는 여덟 가지 교훈

이탈리아 세 번째 도시인 나폴리는 내가 거주하며 사역하고 있는 곳이다. 나폴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이동이 폐쇄된 이탈리아 도시들 중 하나이다. 교회 예배를 포함하여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었다.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등 공적 모임이 모두 취소되었다. 학교와 극장, 박물관과 체육관 등 모든 공공장소가 문을 닫았다. 아내와 나는 방금 전 쇼핑몰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계산대 앞에서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탈리아는 최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그 결과 이탈리아 정부는 전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다는 것이 답이다. 우리는 이 폭풍의 눈을 들여다보며, “주님,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나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시나요?”라고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덟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 인간의 취약성

세계적으로 찾아온 위기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 정부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력하고 전파력이 빠른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그러한 위협에 처한다면 과연 인류의 종말을 막을 수 있을까? 대답은 명백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의 말이 진실하게 들린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혹은 코로나19)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시 103:15-16).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

둘, 인간의 평등성

코로나19는 국경에 상관없이 퍼지고 있다. 그것은 중국 바이러스가 아니다. 인류 전체가 경험하는 바이러스다. 아프가니스탄, 벨기에,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미국 등 150여 개국에서 발생했다. 우리 모두는 인류라는 거대한



이탈리아 나폴리 거리.

가족의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17). 피부색, 언어, 억양, 문화의 다름은 유행병의 눈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 세계 각국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바 이러스의 눈으로 보면 모두 똑같은 존재이다. 고난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 인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두 완전히 평등하며 말할 나위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셋, 통제력 상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이 잘 통제되기를 원한다. 운명을 다스리고 주도하고 싶어 한다. 오늘날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중요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이다. 가정의 난방이나 보안시스템을 원격 조정할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송금을 할 수 있고, 운동과 약으로 몸의 건강 상태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잘 통제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환상일 수 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대책으로 학교를 폐쇄했다가 개방하고 이제는 다시 폐쇄하고 있다. 우왕좌왕 하는 당국이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모두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살균제 스프레이로 무장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는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환상일 뿐이다.

넷, 소외되는 고통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 며칠 전 이탈리아 북부를 방문했다. 나폴리로 돌아온 그녀는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식사 모임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북부 지방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모임에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위험지역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분명히 이러한 거리두기는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나폴리 중심에 있는 한 레스토랑 주인은 최근 검진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았

는데 비교적 건강한 상태지만, 이웃사람들의 꺼리는 반응 때문에 슬퍼했다고 말한다. 한 신문은 그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보다 더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그가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이 그와 그의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다.”

제외되고 소외되는 감당하기 어렵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소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환자들은 이 경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강제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으며, 그들이 살던 마을을 지나가려면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다(레 13:45 참조).

다섯, 두려움과 믿음의 다른 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이런 상황에서는 두려움에 휩싸이기가 매우 쉽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장소가 주변에 널려 있다. 컴퓨터 키보드, 들이 마시는 공기,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들, 구석구석 모든 것이 우리를 감염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위기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이다. 믿음은 먼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어떤 무명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만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 폭풍 속에서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신다.

여섯,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필요성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때 스스로 무용지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나라와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당국을 위해 기도하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자. 확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집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

을 위해,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기저질환이 있고 연로한 고위험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창조로,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을 곳(계 21:4)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일곱, 헛되고 헛된 삶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현실의 삶에 몰두해 있다 보면 균형적 관점을 잃기 쉽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사람과의 만남과 각종 계획들, 일과 소망 사항들, 가정생활과 휴가 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상 가운데서 길을 잃을 때가 많다. 아마도 이번의 위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게 하는 듯하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떤 것이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듯하다. 이 위기는 삶에서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또한 중요한 것과 무의미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여덟, 우리의 소망

어떤 면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한 현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그리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예수님은 이미 더 치명적이고 확산이 빠른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 경고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누구도 피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공격한 바이러스 말이다. 이 바이러스는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류는 죄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유행병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이 바이러스에 당면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성경말씀은 ‘죄’라 불리는 바이러스로 감염된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분은 병자들과 함께 살면서 방역복을 입지도 않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똑같은 음식을 드셨다.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도 제외되고 소외된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 병든 세상에 이 바이러스 해독제를 주시고자,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 Mark Oden 목사(Chiesa Evangelica Neapolis)



TGC KOREA '코로나19'에 관한 아티클

KOREA 복음연합

신앙고백서들로 읽는 '코로나19' 정국

프랑스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 특히 신천지 집단의 일방적이고도 맹목적인 신앙의 태도에서 발생한 급격한 바이러스의 전파는 급기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게 했었다. 국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파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것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고려했던 이 또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점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던 국회의원의 상당수도 기독교 신자였다. 우리가 마주했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과 같은 대책을 신학적인 비평과 국가 권세와 교회의 적절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정교 분리'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전혀 별개로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존재와 구성원들이 모두 국가라는 제도적인 영역 안에 포함된 이상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완전히 별개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서로 교차하는 영역을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가, 혹은 서로 교차할 수 없는 영역을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교회의 문제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해서는 안 되고, 세속정치에 교회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철저한 정교분리가 교회의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미군정 하에서 교회가 받았던 적산가옥의 활용이나 군사정권 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역할로 받은 수많은 혜택은 전부 불법이며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장로교회는 교회와 국가권력 사이의 적절한 영역설정에서 성경적인 지침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17세기 개혁신학이 융성했었던 시기에 이미 충분한 경험과 신학적 검증 가운데서 적절한 영역을 설정한 것이다. 16세기에 이미 융성한 장로교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프랑스 위그노들의 신앙고백(1559)에서부터 17세기 장로교회의 신앙 표준을 완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에 이르기까지 장로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와 국가 사이의 적절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입증하는 신조와 교회 정치의 원리들을 산출해 둔 것이다.

프랑스 신앙고백 제39조를 보면 관원의 역할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질서와 정욕을 억제할 굴레로 세상에 세속정부와 법률을 세우셨다고 믿는다. [중략]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만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대 변화가 제시하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답을 줄 수 있는지 스스로 통찰하는 의미로서, 신앙고백서와 신조들을 깊이 탐구해 보는 열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만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을 거스르는 범죄까지 억제하기 위하여 관원들의 손에 검을 쥐어 주신 것"이라고 했다. 제40조에서도 관원에 대한 복종에 관하여 "우리는 관원들의 법률과 규칙에 따르며, 세금, 조세, 그 밖의 의무를 수행하고, 비록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침해받지 않는 한 자율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명을 메야 한다"고 했다.

벨기에 신앙고백(1561)에서는 제36조에서 위정자들에 관하여 "그들의 직책은 단지 국가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감시할 뿐 아니라 거룩한 목회사역을 보호하며,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된 예배를 제거하며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위정자들은 어디서든지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서 준권과 예배를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에서도 제23장 국가의 관원에 관하여 서술하는 과정 중 3항에서 이르기를 "관원은 말씀과 성례의 집행도, 천국 열쇠의 권세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관원은 교회에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한 상태로 간직되도록, 그리고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들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아울러 예배와 권징에서 생기는 모든 부패와 악습을 예방하거나 개혁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정당하게 확립되고 시행되며 준수되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관원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신앙고백과 벨기에 신앙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 하더라도 교회와 국가의 위정자 혹은 관원들에 대한 분명한 역할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개혁된 교회들의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에서 동일한 맥락의 문구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교회들은 이미 그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정리했다.

물론 현대사회의 관원들이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다종교국가로 존재하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의 신자는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얼마든지 적절한 실천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더욱이 교회의 신앙을 가진 관원들의 경우라면 더더욱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적절한 실천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행해야 마땅한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관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현실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일련의 항목은 작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정국 가운데 엮여 있는 신천지 이단이나 무분별한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일부 단체들에게,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고려했던 실정에 대해 분명하고도 성경적인 판단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침들을 서술하고 있다.

선동을 주도하는 일부 세속정치 지향의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를 지지

하고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적인 권세든지 교회적인 권세든지 간에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합법적인 행사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한 4항 초반부의 신앙고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고려하며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기독교 관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따라서 믿음의 문제이거나 예배의 문제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거나 벗어난 '사람의 가르침이나 명령'에 양심을 얽매이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믿거나 그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한 2항 초반의 신앙고백을 살펴볼아야 한다.

코로나19 정국 가운데 깊이 엮여 있는 신천지 이단과 그들에게 빠진 자들에게는 "그리고 '맹목적인 양심'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성도 역시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 2항 후반부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성경적인 판단과 조언을 들어야 한다.

신앙고백은 단순히 그 시대의 영주들이나 관원들의 견해나 입장을 의식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그러한 견해를 결코 선부르게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 많은 신앙인들의 의외로 간단하게 자신들의 신앙적 말바닥을 보이는 것 같다. 국가 위정자들에 관하여, 이단들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에 관하여 너무도 쉽게 자신들의 오류와 불신앙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결코 간단하고 짧은 생각 가운데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대의 변화가 제시하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통찰하는 의미로서, 이미 역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되었던 신앙고백서와 신조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차분하고 건전한 열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선부는 답변을 남발하기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행 17:11~12)이 많았던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야 할 것이다.

/ 장대선 목사(도서출판 고백과문답 대표, 장로교회정치연구소장)



KOREA 복음연합

TGC KOREA '코로나19'에 관한 아티클

‘코로나19’와 디지털 교회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 가고 있다. 자가격리, 재택근무, 온라인 예배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직장인은 이메일, 컨퍼런스콜, 온라인 영상 회의로 소통하며 재택근무를 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부들은 식사준비와 자녀교육으로 분주하고, 자녀들은 개학이 연장되면서 집에서 헤드셋으로 친구와 대화하면서 게임을 한다.

미국은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했고, 주별로 250명에서 50명 이상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미국 행정부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피하라고 권고도 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미국 교회들은 3월 22일부터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는 그 본질적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지털리소스들을 활용해야 할까?

온라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했다. 우리는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예수님은 그 질문의 대답으로 특정 지리적 장소보다 ‘영과 진리’(in the Spirit and in true) 안에서 아버지(the Father)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눅 4:20, 23~24).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이다. 예배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가 가능하다.

재난의 상황에서 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모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형식을 준중해 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일 오전 온 가족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평안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볼 수 있다. 예배당 안에서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정, 골방, 직장에서 누리는 기화로 삼자.

디지털 자료를 공유하자

미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각 교단 총회, 선교단체, 기독교 대학 등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미 남침례교출판사 라이프웨이(Lifeway)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리소스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휘튼대학교와 빌리그래함센터와 새들백교회는 함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팟캐스트, 웨비나(Webinar)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웨비나는 웹 세미나의 줄임말로 공간적 제약 없이 여러 사람이 소통하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세미나이다. 재난의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한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도 필요하다. 텍사스침례교단(BGCT, SBTC) 홈페이지에는 재난 상황에서 교회의 대처, 예배 생방송 방법, 디지털 목양, 디지털 소그룹, 교회학교 자료, 홈스쿨 자료 등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있다.

작은 교회도 긴급 상황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카카오톡 TV 같은 플랫폼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카카오톡 라이브 특기능을 사용하면 최대 30명까지 생방송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프리즘(PRISM Live Studio)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 직접 예배를 생중계할 수 있다. 줌(Zoom)은 무료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로 멀

만 있으면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앱, 구글 행아웃(Hangout) 등을 이용하여 각자 집에서 서로 얼굴을 보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비록 화면이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성도들은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 새들백교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약 1,000개 온라인 소그룹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주일설교 말씀을 듣고 소그룹별로 준비된 질문지 내용으로 40분 정도 나누는 방식이다.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새신자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유입되고 침례를 받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에게는 전화 심방으로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한다면 큰 힘을 얻을 것이다.

온라인 합심 기도에 집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출 17:8~11).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의 기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 문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
교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디지털 세계 한복판에서 그물을 내려야 한다.”**

리 떨어진 사람들과 최대 100명까지 서로 얼굴을 보며 모임을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북미,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화상회의 앱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소그룹을 시도하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바울이 얼굴 보기 원했던 이유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신약 교회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했다. 신약 교회는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갔다. 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위기의 순간에 소그룹(다락방, 목장, 구역, 목장, 셀 모임)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디지털리소스를 선용하여 모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재난의 상황에서 무슨 온라인 소그룹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재난의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한다. 미국 대학들은 2020년 봄 학기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필자가 사는 지역 공립 중고등학교는 가정 온라인 수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교회도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게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스마트폰

도 손이 올라가야 한다.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싱가포르의 한 교회는 ‘COVID 19시 기도회’를 제안하고 매일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많은 한국 교회가 긴급 온라인 기도회를 선포하고 매일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루에 세 번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수천 명의 참여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합심기도를 한다. 규모가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한 개척교회 목사는 카카오톡 라이브 특을 통해서 15명 정도 그룹과 매일 저녁 온라인 라이브 기도회를 하는데, 참여한 성도 대부분 ‘요즘 우울한 소식밖에 없는데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으로 큰 힘과 위로를 얻는다’라고 고백한다.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 진료소가 전 세계에 찬사를 받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에 서도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열심 있는 기도, 뜨거운 온라인 합심 기도로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다. 필자는 이렇게 열심히 온라인 합심기도를 통하여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을 ‘코리아 처치 플레이어 스루’(Prayer through) 방식이라고 부르고 싶다. 한국 교회의 ‘

플레이어 스루’ 방식은 전 세계 교회에 모범이 될 만한 사례이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급진정 되고 있다고 믿는다. 한국 교회의 기도운동이 온 세계 교회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온라인 헌금으로 선행에 동참하자

세계적 큰 흉년 때문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행 11:28). 안디옥 교회는 본인들도 힘들 텐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교회에 전달했다(행 11:28~30).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행 11:26).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은 세상은 탐욕, 이기심, 자기중심성으로 충만하다. 복음으로 죄의 바이러스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교회에 나타나는 증상은 섬김과 나눔과 희생이다. 복음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현하며 세상 문화에 맞서게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가운데 분당의 한 교회는 14억 넘는 온라인 헌금을 대구지역 병원을 돕고, 개척교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강남의 한 교회는 주일 온라인 헌금 전액인 수억 원을 대구, 경북 지역에 기부했다. 수많은 교회가 함께 고통당하면서도 더 어려운 지역으로 사랑의 헌금을 보내고 있다. 재난의 상황에서 온라인 헌금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필수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온라인 헌금으로 선행에 동참할 때 우리 사회에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의 복음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세계에 그물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눅 5:4~6). 21세기는 디지털 세계이다.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전통적 방법만을 고수하지 말고 깊은 곳인 디지털 세계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디지털 세계에 빠르게 적응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은 모두 30년이 안 되는 신생 기업들이지만 21세기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디지털 세계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야 한다. / 박용기 목사(새안젤로한인침례교회)

차세대 ‘사순절 성경쓰기’

국내 캠퍼스 차세대 교사, 학생, 학부모 참여

차세대사역본부가 지난 2월 26일(수)부터 4월 10일(토)까지 이어진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성경쓰기’ 행사를 실시했다.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차세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나눠준 <성경필사노트>를 활용해 성경을 읽고 쓰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 다음은 차세대 사순절 성경쓰기 참가자들의 간증 요약.

차세대 교사

“우리 가족의 새로운 예배프레임”

온 가족이 모여 새벽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둘러앉아 성경쓰기를 했다. 할머니(나), 엄마(큰 딸), 이모(둘째 딸) 그리고 손녀가 한 마음으로 성경쓰기를 했다. 출근과 육아로 모두 함께 모여 성경쓰기를 한 날이 드물었지만 성경 말씀을 같이 써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믿음이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인 손녀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묻고 대답해주면서 함께 믿음과 말씀의 지식이 자라는 시간이었다. 사순절

성경쓰기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예배프레임이 되었다. 손녀가 개학하면 계속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고만하며 노력하려고 한다. 개학하기 전까지는 다시 시작되는 ‘오순절 성경쓰기’를 통해 이 아름다운 습관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 박혜옥 교사(꿈이자라는땅)

“저도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듯이 저도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섭고 잔인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부활 하셔서 마음이 기쁘고 좋았어요.

/ 장안나 학생(꿈이자라는땅)

차세대 학부모

“주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처음 도전한 성경필사 40일 동안의 여정을 혼자 했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환희와 예희가 함께 해주어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어른인 나도 쉽지 않은 내용과 양을 아들과 딸이 깨끗하게 완주한 것을 보니 더욱 자랑스롭다.

십자가에 달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과 부정을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온 몸으로 당하셨던 우리의 어린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끝도 없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주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시다!

/ 전지은 성도(꿈이자라는땅 학부모)

“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지난해 12월 말 수술을 받고 면역력이 떨어져 힘든 가운데 세 아이의 긴 겨울방학을 맞이했다. 이후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또 다시 시작된 힘든 회복 과정과 육아와 가사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세 아이와 함께 40일 사순절 성경쓰기를 해나가며 예수님을 묵상했다. 말씀을 읽고 쓰며 은혜로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고난주간 동안 나에게 급성 위염이 찾아왔다. 먹지도 못하고 토하며 세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그때 읽은 본문에 쓰인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외침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는 수술 이후 몸이 아프다고, 계속 되는 건강의 고난이 아프다며 주님께 부르짖기만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내려 놓으셨는데 나는 육신의 연약함을 한탄했던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 김현희 성도(꿈이자라는땅 학부모)

차세대 학생

“빛 되고, 위로 되고, 삶의 이유가 된 40일”

요즘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또 고3이 되어 공부만 하느라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40일 사순절 성경쓰기가 시작됐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성경을 쓰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주셨다.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어서 눈물이 나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순수하게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던 때처럼 매일 말씀을 쓰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사순절 성경쓰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기력하고 외롭고 공부에 치이며 걱정하는 나의 삶에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된 40일이었다.

/ 김근양 학생(파워웨이브)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짐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쓰면서 그동안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짐했다. 하늘나라란 어떤 곳 일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다.

40일 동안 성경쓰기를 끝낸 내가 뿌듯하기도 하다. 오순절 성경쓰기가 또 있다고 하니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만나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니

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간이 그립다. 다시 모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코로나 사태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끝내실 분 또한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믿는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최경민 학생(파워웨이브)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성경필사노트>를 활용해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고 있다.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꿈같은 세상이 열렸다”

기독교가 일궈낸 또 하나의 역사 ‘조선의 교육’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불가능했거나 아주 많이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한국 근대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한국 근대화의 씨앗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 여성운동과 계몽운동, 상업장려운동과 독립운동 등을 이끌면서 우리 민족의 기적 같은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 아름답고 빛나는 조선의 선교 역사를 분명히 직시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번 순서에는 근대화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교육보급에 관한 역사를 조명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교육과 근대화는 바늘과 실, 닭과 달걀처럼 우선순위를 논할 수 없는 짝꿍이다. 조선시대 후기의 교육은 어땠을까? 지금이야 공교육은 물론이고 사교육까지 포화상태지만 당시 평민들과 여성들에게 교육은 사치일 뿐이었다. 지금이야 교육의 질을 우선 고려하는 시대지만 당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화두였다. 조선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꿈같은 세상이 열렸다.

기관에서의 교육은 ‘그림의 떡’ 가정교육은 기대조차 힘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생존이 우선이었던 조선시대 평민들과 여성들에게 교육은 꿈조차 꿀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당시 대표적인 사교육기관이었던 서당과 서원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고, 그마저도 남아들에게만 열려 있었다. 양반가의 여아들조차 시집 가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기본소양만 교육받는 일이 허다했다. 서당과 서원 같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평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자 기회는 가정인데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당시에는 이혼율이 매우 높고, 건강한 가정을 찾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이혼한 양반과 평민들이 이혼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와 옷솜을 잘라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을 정도로 이혼이 흔했다. 계층마다 조금 다르지만 당시 노비의 이혼률은 최대 50%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조선 시대 높은 이혼률을 자랑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독특한 결혼문화다. 당시에는 빠르면 십대 초반에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 배우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주는 짝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문란한 성생활도 높은 이혼률의 원인 중 하나였다. 당시 이혼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가관이 아니다.

조선 중기 양인인 박의환이란 사람은 다섯 번 혼인을 했다는 문서가 남아있는데 네 번의 이혼사유가 모두 바람(외도)이었다. 서양인들과 선교사들도 당시 조선 사람들의 이혼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19세기 조선을 여행한 영국인 새비지 랜도는 “조선의 하층계급 여인들은 20번째 남편과 사별을 하더라도 곧바로 21번

째 결혼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고, 비숍 선교사는 “한국에는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고 기록했다.

“그래도 나는 배우고 싶다”

그래도 조선 사람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18세기부터 신분제가 느슨해지면서 평민들을 위한 서당이 하나 둘 생겨났다. 이를 ‘평민서당’이라고 하는데 돈이 있는 평민들이나 마을에서 기금을 모아 평민들을 위한 서당을 운영했다.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을 보면 양반과 평민들이 한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시기 즈음 조선의 교육에 조그만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8~19세기 조선에 최대 서당 2만여 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이는 조선 평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엿볼 수 있는 수적이다.

그런데 평민서당에도 한계가 있었다. 교육의 질이 제각각이었고, 여아들은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평민들은 이름을 읽고 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수준이었고, 여아들은 평민서당에 다닐 수 없었다.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 다블뤼 주교는 조선의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온갖 악덕과 결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만약 아이들의 결점을 내버려 두지 않을 때에는 아이들을 지나치게 때립니다. 항상 과도함이 존재합니다.”

18~19세기는 조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가 전파한 ‘여성교육’과 ‘가정교육’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일이 무엇일까?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8월 3일 두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친 날이 배재학당의 개교 일인데 그날 이후 학생들이 몰려왔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6년 고종에게 ‘배재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받았다. 그 다음으로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1886년 5월 31일 이화학당을 열었다. 당시에는 여아를 학교에 보내는 것



▲ 여성들을 위한 첫 번째 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의 초창기 모습.

▶ 배화여학교의 애국지사들인 김경화, 박양순, 성혜자, 안희경, 안옥자, 소은명 (시계방향).



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종이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내리기 전까지 학생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여학교들은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큰 역할을 했다.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는 틈만 나면 학교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회만 있으면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시간만 나면 교사로 섬겼다. 1910년 전국에 인가된 학교 2250개 중에서 823개가 기독교 학교 일만큼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는 근대식 교육 보급에 앞장섰다.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의 노력이 조선의 여성교육으로 이어졌고, 여성교육이 애국지사를 탄생시키는 통로가 됐다. 김경화, 박양순, 성혜자, 소은명, 안옥자, 안희경 등이 그 주인공이다. 당시 그녀들은 십대 여학생이었는데 3.1운동 1주년을 맞아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 일제에 검거되었다.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참여를 꿈조차 꾸지 못했던 조선에서 그것도 여성들에 의한 이러한 변화는 가히 엄청난 일이었다.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에서는 가정예배를 통해 기독교식 가정교육도 실시했다. 당시 조선 교회는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기 전부터 만주 일대 한인촌에서 세례 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1884년 압록강 인근 28개 한인촌에 세례교인이 100명, 세례 받기를 희망하는 남자 600명과 그들의 일가족 수천 명이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1918년 창간된 기독교월간지 <성경잡지>에서도 당시 가정예배를 통한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스도교인은 좋은 모범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열성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성의를 표하며, 평일의 말과 글과 행동이 주의 뜻에 맞지 아니한 것을 고함입니다. 그러한 집의 자녀는 가정의 완전한 교육을 받아 구태여 자기의 본 모습을 알리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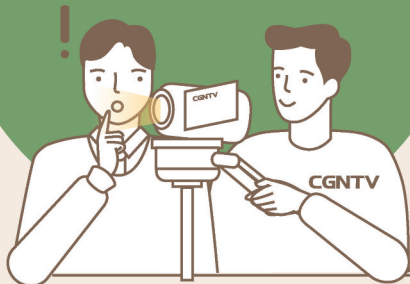
15th CGNTV 개국 15주년
ANNIVERSARY 한국교회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

지난 15년 성도님의 사랑으로 성장한 CGNTV,
이제 작은 교회와 함께 미디어 선교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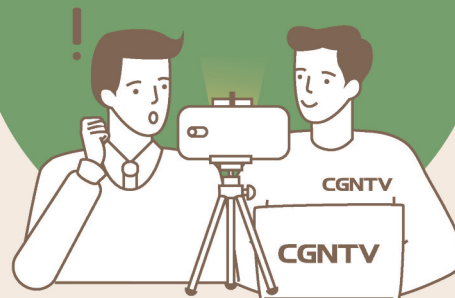
50

50개 교회에 방송 장비와
방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00

200개 교회에 스마트폰 예배 장비와
온라인 화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 “사랑으로 함께!”로 마음을 모아주신 2,241분의 성도님들과 함께합니다.

CGNTV의 섬김으로
전국 250개 작은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